

# 인삼공사, 역대 최초 무결점 10전 전승 챔피언 도전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가 하늘을 찌르는 기세를 앞세워 1997년 출범 이후 최초로 '플레이오프(챔피언결정전 포함) 10전 전승 챔피언'이라는 새 역사에 도전한다.

인삼공사는 5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전주 KCC와의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4선승제) 2차전에서 제러드 설린저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변준형, 이재도, 오세근, 문성곤 등으로 이어지는 국내 라인업을 앞세워 77-74로 승리했다.

원정에서 값진 2연승을 달리며 챔피언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역대 챔피언결정전 12차전에서 모두 승리한 팀의 우승 확률은 81.8%(11회 중 9회)였다.

인삼공사는 부산 KT와 6강 플레이오프(3승), 울산 현대모비스와 4강 플레이오프

챔피언전 2차전 잡으며 역대 최다 8연승 타이 1997년 출범 후 6강부터 플레이오프 전승 없어 오늘 안방 안양에서 3차전... 승리하면 신기록

(3승)에 이어 2승을 더 거둬 플레이오프 8연승을 달렸다.

8연승은 역대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최다 연승과 타이 기록이다.

앞서 현대모비스가 챔피언에 오른 2012~2013시즌 4강 플레이오프(3승)부터 챔피언결정전(4승), 2013~2014시즌 4강 플레이오프 1차전까지 모두 이겼다.

인삼공사가 7일 3차전까지 잡으면 최초로 9연승을 거두게 된다.

수준이 다른 외국인선수 설린저를 중심으로 오세근, 이재도, 변준형, 문성곤, 전

성현, 양희종 등 국내선수들이 조화를 이뤄 빈틈이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2차전에선 설린저(8점 11리바운드 5어시스트)가 필드골 성공률 11%로 부진했지만 변준형(23점), 이재도(21점), 오세근(20점 6리바운드), 문성곤(5점 13리바운드)이 위기를 잘 넘겨 웃을 수 있었다.

설린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붙었다.

원정에서 모두 승리한 인삼공사는 3차전부터 안방 안양에서 홈 이점을 안고 더 기세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시리즈가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사진)가 1997년 출범 이후 최초로 '플레이오프(챔피언결정전 포함) 10전 전승 챔피언'이라는 새 역사에 도전한다.

남았지만 인삼공사가 KCC에 4연승을 거두며 챔피언결정전을 마칠 경우, 역대 처음으로 6강 플레이오프부터 10전 전승으

로 챔피언에 오르는 팀이 된다. 플레이오프 무패 우승은 2005~2006시즌 서울 삼성, 2012~2013시즌 현대모비스에 이

어서 번째인데 삼성과 현대모비스의 경우 4강 플레이오프부터 치러 7승을 거뒀다. 스키아데일리/뉴스



## “새 사령탑을 찾습니다”

토트넘, 인터밀란 감독과 접촉

새 사령탑을 찾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이탈리아 출신 명장 안토니오 콘테 인터밀란 감독(사진)과 접촉했다.

이탈리아 매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는 6일(한국시간) “토트넘이 콘테 감독과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콘테 감독도 토트넘 행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조세 무리뉴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토트넘은 구단 출신인 라이언 메이슨 감독대행이 임시 지휘봉을 잡고 있다. 토트넘은 잔여 시즌을 메이슨 대행에게 맡긴 뒤 무리뉴의 후임자를 물색 중이다. 애초 토트넘은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

차히의 울리안 나겔스만 감독을 1순위에 올려놓았으나, 나겔스만이 바이에른 뮌헨과 다음 시즌부터 함께하기로 하면서 다른 감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다음 후보군이었던 에릭 텐 하그 아약스 감독도 재계약을 맺으며 토트넘 행 가능성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올 시즌 인터밀란을 11년 만에 이탈리아 세리에A 정상으로 이끈 콘테 감독이 토트넘의 새 감독 후보로 급부상했다. 콘테는 과거 첼시를 이끌며 EPL 무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 2016~2017시즌에는 첼시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콘테 감독과 함께 같은 이탈리아 출신의 마우리치오 사리 전 유벤투스 감독과 지안 피에로 가스페리니 아탈란타 감독과도 접촉했다. 스키아데일리/뉴스

## 슬의생, 5인방 추억의 포스터 공개

'99즈' 의대 동기로 구성 시즌2, 6월 17일 첫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99즈’ 의대 동기 5인방의 추억 포스터를 공개했다.

tvN 목요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슬의)는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에서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20년지기 친구들의 케미스토리를 담은 드라마다. 6월 17일 오후 9시 첫 방송 예정이다.

시즌2 방송을 앞두고 99즈 추억 포스터가 공개됐다. 5인방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포착한 시즌1 포스터들로 구성됐다.

익준(조정석), 정원(유연석), 준완(정경호), 석형(김대명), 송하(전미도) 의대 동기 5인방의 완전체 포스터부터 밴드, 퇴근길, 휴식 포스터까지 매 순간을 함께한 5인방의 모습을 사진첩 형태로 배치했다. 한 장의 포스터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의 모든 시



간을 담았다.

여기에 “새로운 계절, 우리들의 특별한 보통날이 시작된다”는 문구는 다시 돌아온 새로운 계절, 생사의 경계에 있는 병원에서 이들이 겪게 될 삶의 희로애락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슬의2’ 제작진은 “시즌2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시즌1의 추억들을 한 컷에 담아 사진첩 형태로 제작했다. 시즌2를 통해 선보일 5인방의 특별하지만 평범한 보통의 일상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스키아데일리/뉴스

## 싱어게인 '63호' 이무진, 녹음실 선택

14일, 3년 만에 신곡 발매

JTBC '싱어게인' 63호, 가수 이무진(사진)이 녹음실 현장 스케치를 공개했다.

이무진은 14일 신곡을 발매한다. 이에 앞서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SNS를 통해 그의 녹음실 모습을 담은 현장 스케치를 공개했다.

사진 속 이무진은 헤드폰을 목에 건 채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고개를 살짝 꺾은 채 학교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



고 있다. 이번 신곡은 '싱어게인' 출연 이후 처음 발매하는 음원이자, 2018년 발매한 '산책' 이후 약 3년 만에 발매하는 신곡이다. 무명 가수에서 유명 가수로 거듭난 그의 신곡을 기다려온 팬들에게 선물 같은 곡이 될 전망이다.

스키아데일리/뉴스

## 임영웅 '내 마음 별과 같이' 영상 돌풍

5일 만에 조회수 100만회 돌파

가수 임영웅(사진)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귀를 사로잡은 '내 마음 별과 같이' 영상이 공개 5일 만에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했다. 임영웅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4월 30일 '임영웅 '내 마음 별과 같이' 사랑의콜센터(ENG)'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4월 29일 방송된 TV조선 '사



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이 현철의 노래 '내 마음 별과 같이'를 선보인 무대를 담은 영상이다. 스키아데일리/뉴스

보다 나은 **KFS+**

# 똑똑한 물관리,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작합니다.

농업용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로 오천만 국민의 터전과 먹을거리를 책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KFS**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안정적 용수공급**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용수 공급

**스마트 물관리**

물관리 정보의 빅데이터화를 통한 과학적 물관리

**쾌적한 친수공간**

다시 찾고 싶은 농어촌이 되도록 아름다운 친수공간 조성

**친환경 수질개선**

수질오염에 대해 친환경기술을 통한 정화로 보다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